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한 토론

경제작전과 지휘를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진행하여 전력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겠다

김 만 수 대 의 원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인 리정표를 아로새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맞게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사회주의위업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는 지름길을 밝힌 설계도이며 천만군민을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에로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전력문제를 푸는것을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로 정해주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우리는 발전설비들을 정비보수하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새로운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5개년전략수행기간의 전력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틀어쥐고 화력발전소들의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겠습니다.

화력발전소들에 여러가지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석탄과 중유소비를 결정적으로 줄임으로써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적극 발휘하여 수력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겠습니다.

수차발전기와 변압기, 차단기, 단로기를 비롯한 설비와 수력구조물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효률이 낮은 수차들을 계획적으로 교체하며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력관리를 과학화하고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끝냄으로써 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며 전력랑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전기를 효과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지연지구의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성하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발전소들과 삼지연군의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을 최대로 늘이겠습니다.

송변전부문의 불합리한 설비들을 원상복구하고 전력계통의 력률을 높임으로써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5개년전략 전력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서 관건적문제인 발전소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지금 건설중에 있는 발전소들의 조업과 운영준비를 다그치고 단천발전소건설과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겠습니다.

성에서는 중소형발전소와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확대하는데서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성, 중앙기관들과 도, 시,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이 자기의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면하여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올해 인민경제발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경제작전을 주도세밀하게 진행하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가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수행에서 앞장에 서도록 적극 도와주며 그 성과를 일반화하여 발전소들에서 현대적혁신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의 경제발전전략수행의 직접적담당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하며 대오의 기수가 되어 당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전력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주체비료와 비날론, 기초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하며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겠다

리 무 영 대 의 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학공업부문에서 생산설비와 계통을 제때에 정비보수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촉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주체비료와 비날론, 기초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을 비롯한 화학제품생산기지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지 못하고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많은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최근년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기능성3겹온실박막생산공정과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기계제염공정,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비롯하여 화학공업원료의 국산화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할수 있는 생산기지들이 새롭게 일떠섰습니다.

특히 총정의 70일전투를 통하여 우리는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걸린 문제가 결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는것이 아니라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이 어떻게 발동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뼈에 새기게 되였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의 투쟁목표를 얼마든지 점령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당앞에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책임졌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을 지니고 5개년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결사의 투쟁을 벌려나가겠습니다.

남흥과 흥남의 주체비료생산기지들에서 비료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건과 가스화촉매기지건설을 다그쳐 끝냄으로써 농업부문에 요구되는 비료전량을 생산보장하겠습니다.

전략수행기간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과학기술력량과 잠재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현존생산공정들에서 전력소비를 지금보다 절반이상 줄이면서도 각종 중간제품들을 생산하며 여러가지 합성수지생산을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화학공장에 큰 규모의 접촉분해공정을 새로 꾸려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며 생산공정건설 및 개건보수공사를 다그쳐 더 많은 가성소다와 탄산소다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종이원료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며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소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임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소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겠습니다.

저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화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총진군에서 나라의 화학공업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주체철생산체계확립의 성과를 확대하여 철강재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

김 충 걸 대 의 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밝혀주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의 신념으로 받아안은 우리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강철전사들은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며 철강재생산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드높은 열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철강재를 많이 생산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기본고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속공업부문에서 제철, 제강, 압연공정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며 원료, 연료, 동력보장대책을 세워 철강재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우리앞에는 지난해보다 선철은 4배, 강철은 5배, 압연강재는 4.8배로 생산을 장성시켜 나라의 철강재수요를 보장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 우리의 연료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산소열법용광로를 일떠세우고 압연공정의 무연탄가스화를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총정의 70일전투기간의 철강재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한 귀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기업소앞에 제시된 5개년전략목표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습니다.

황철의 로동계급은 나라의 금속공업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로고를 언제나 가슴뜨겁게 새기며 20여년동안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자체의 힘과 기술로 산소열법용광로와 무연탄가스발생로를 일떠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생산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주체철생산토대에 의거하여 철강재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틀어쥐고 이미 마련된 주체철생산공정들의 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겠습니다.

합리적인 용해조작법에 맞게 산소열법용광로의 부분구조를 보다 완비하며 원료장을 확장하고 여러 공정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건하는 사업을 올해안으로 결속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마련된 압연공정들에 중유를 쓰지 않는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이 도입된데 맞게 그 성과를 확대하며 압연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압연롤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여러가지 규격의 강재생산을 적극 늘여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철생산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내화물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여 질좋은 내화벽돌을 생산함으로써 철강재생산성과를 담보하겠습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누구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더 많이 창조하도록 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킴으로써 그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선구자적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그들과 기름냄새도 함께 맡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 어깨를 들이미는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기업소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이 언제나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강철로 억세게 받들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도록 농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해나가겠다

리 철 만 대 의 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농업부문에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놓을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식량문제, 농업문제해결의 대강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중의 유훈이며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실현에서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당에서는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내세우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농업부문이 아직 당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서지 못하여 인민들이 생활상애로를 겪게 하고 경제강국건설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강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강화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식량고통을 겪게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허물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 제시된 농업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 당 제7차대회 정신을 결사보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틀어쥐고 농업생산전반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모든 농업생산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농사의 열풍을 일으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함으로써 농산과 축산, 과수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선진영농방법과 영농기술들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식의 현대적인 농기계와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적극 이끌어주어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며 나라의 관개체계를 더욱 완비하여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5개년전략수행기간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는것과 함께 대홍단군과 삼지연군을 비롯한 감자생산단위들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끊임없이 높이며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된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적극 밀어주겠습니다.

농업부문의 모든 사업을 당의 농업정책관철과 인민생활향상에 지향복종시키고 농업부문 당조직들과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이 생산조직과 지휘를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을 구현하여 사무실적사업방법과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고 언제나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참신한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켜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어쥐고 농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그 성과를 확대해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당사업의 총력을 집중하여 평양시가 5개년전략수행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겠다

김 수 길 대 의 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시였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인 경제강국건설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5개년전략수행기간 평양시앞에는 전례없이 방대한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인민생활과 직접된 농업부문에서 알곡과 남새, 닭알, 오리고기생산을 늘이고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례지게 할뿐아니라 시의 경제사업전반에서 획기적인 장성을 이룩해야 합니다.

수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총정의 70일전투기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철야전을 벌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전력생산은 1.5배, 석탄생산은 1.4배로 늘이면서 지표별전투목표를 174%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수십개의 대상공사를 훌륭히 완공하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불같은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할 때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요새가 없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였습니다.

우리는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총공격전을 드세게 벌려 평양시앞에 나선 전투과제를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농업생산목표를 지표별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우량품종의 종자들과 선진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며 남새비배관리와 남새온실들의 관리운영을 잘하여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공급하겠습니다.

당에서 품들여 마련해준 닭공장, 오리공장들과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운영을 활성화하고 버섯생산과 그물우리양어, 과수를 추켜세우며 농기계공장들을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와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겠습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평양가방공장과 애국남새가공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현대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명상품, 명제품이 차례지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양시당위원회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시안의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만리마시대의 영웅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수도의 정치사상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 당사업의 총력을 집중하여 200일전투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5개년전략수행에서 평양시가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국가경제발전전략수행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겠다

리 충 길 대 의 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인 경제강국건설의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입니다.

우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앞에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작전과 지도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국가경제발전전략수행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여야 할 오늘 나라의 과학기술사업에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작전과 지도에서 전략적집중성을 보장하지 못한데로부터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작전과 지도관리를 바로하고 과학연구개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보장사업을 잘해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현시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를 가슴깊이 자각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작전과 지도관리를 결정적으로 혁신해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사업에서 전략적집중성을 보장하여 당에서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점령하며 나라의 경제를 에네르기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금속공업부문에서 철강재생산의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고 원료, 자재,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의의가 큰 문제들을 큼직큼직하게 설정하여 해결해나가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성, 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에 이르는 국가적인 기술지령체계, 기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새 기술, 새 제품개발도입정형, 현대화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여 제때에 해당한 경제기술적대책을 세움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나가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라의 종합적과학기술력과 해당부문의 과학기술력을 평가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완성하며 세계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2.16과학기술상수여사업과 년간 최우수과학자, 기술자선정 및 평가사업을 비롯하여 과학자, 기술자, 인재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며 국가경제발전전략수행에서 애국의 열정을 바쳐나가도록 고무추동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경제강국건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심장속깊이에 자리잡은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일군답게 혁신적인 안목에서 세계를 굽어보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작전과 지도관리를 짜고들어 진행할뿐아니라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으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과학기술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갱내작업의 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겠다

리 영 철 대 의 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탄광들에서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탄공정을 완비하여 질좋은 석탄을 소비단위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련합기업소에서는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우에서 대줄것을 바라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정의 70일전투기간 우리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석탄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애국열의가 높이 발양되는 속에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200마력권양기를 제작하였으며 수백대의 탄차를 생산하여 운반능력을 1.2배로 높였을뿐아니라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높이 세운 7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였습니다.

총정의 70일전투를 통하여 우리는 생산장성의 예비는 대중의 심장속에 있으며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련합기업소는 70일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뜻깊은 올해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200일전투로 들끓고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우리 련합기업소에서는 당의 령도업적단위답게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일군들과 탄부들을 총궐기시켜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당의 경제전략의 요구에 맞게 탐사를 확고히 앞세워 매장량을 확보하며 준비굴진을 선행시키는것과 함께 2개 탄광의 사갱굴진을 다그치고 형봉탄광의 침수된 갱을 복구함으로써 석탄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탄광기계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자체의 힘으로 권양기와 탄차를 비롯한 설비와 부속품생산을 정상화하며 200일전투기간 버력적재기를 시험생산하여 앞으로 모든 굴진막장에 도입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능률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채취률을 높이며 선탄공정을 완비하는 등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련합기업소의 생산지휘체계를 개선하고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제남탄광과 남양탄광에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중속에서 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습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후방사업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축산기지와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늘임으로써 탄부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 남새와 버섯이 차례지게 하겠습니다.

저는 당의 경제전략실현의 운명을 어깨에 걸머진 일군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 석탄증산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